

육군 부사관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몰린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 인재 모집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가운데, 육군이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사관 모집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육군 부사관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던 과거의 인식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군의 고급인재로 각광 받고 있다. 육군 부사관이 되는 길과, 부사관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 현직 부사관이 말하는 비전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육군이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모집하는 육군 부사관은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 안정된 생활도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춘 직업이다. 육군으로서는 첨단 장비를 운용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확보하고, 개인으로서의 생활 기반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도 맞물려 젊은 구직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얻고 있다.

육군 부사관은 ‘군 업무 보조’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달리 전문 지식을 갖춘 육군의 핵심 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보다 많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한 육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과장 남응우 대령은 “처우 면에서 보면, 하사 1호봉의 연봉이 15

전문성 갖춘 핵심 인력으로 발돋움 구직난 시대 청년 인재들 관심집중 군·사회·교육기관과 연계 활성화 신세대 배려 자율개방 혜택도 많아

00만원입니다. 숙소, 피복, 식사, 교통 등 간접비용도 큰 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연봉 수준은 2000만원이 넘죠. 15주 교육을 받고 입대한 부사관의 평균 저축액이 남자 90만원~100만원, 여자 130만원가량인 것을 보면 저축률도 높아요.” 라고 소개했다.

육군은 군에 대해 낯설 수밖에 없는 신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책임과 규율이 중요한 군대이지만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간혀 생활한다’는 느낌이 없다. 일종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영외거주도 가능하다.

남응우 대령은 “처우나 복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자녀교육의 경우 대도시 학사 지원, 격오지 근무자 자녀 특례입학 등을 지원합니다. 육군에서 고민하는 사항은 ‘제2의 직업’을 찾아주는 과정을 모색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회로 바로 이어지는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연계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도 활발하다. 육군은 전문대, 폴리텍 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500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 1~2학년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들은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며, 자신이 배운 학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군수분야, 궤도차량 정비 등 사회에서 배우기 힘든 특수 학과를 군 출신 교수가 가르쳐 전문성을 높였다. 부사관이 된 뒤 야간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세혁기자



인성과 지원분야 전문성 중점 평가

■ 육군 부사관 어떻게 뽑나?

필기고사·신체검사 후 면접
IT관련·내근직 경쟁률 높아

육군 부사관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은 ▲지적능력고사 ▲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신원조회로 이뤄진다.

지적능력고사는 부사관 지원자들을 위한 필기고사로 언어논리, 지각속도, 수리해석, 공간지각능력, 상황판단능력 등을 심사한다.

신체검사는 지원자들의 신체 결함 유무를 파악하고 체력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다.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품성, 국가관, 개인적 가치관을 묻게 되며, 인성검사에서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등이 진행된다. 육군은 이 과정을 모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서 범죄 이력 등을

알아보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핵가족화에 따라 홀로 자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해 인성을 중점적으로 관찰한다. 지휘체계가 분명한 군의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성을 가져야 하며, 군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국애와 희생정신도 갖춰야 한다. 특히 지원분야를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1만 67명이며, 각 분야 중 특히 IT관련이나 실내에서 이뤄지는 기술 분야에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전투나 야전 관련 분야는 다소 경쟁률이 낮다.

부사관 과정은 매달 인터넷(www.army.mil.kr)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대표전화(1588-6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혁기자

“실력·경력 쑥쑥...애국하는 자부심도”

■ 육군 부사관학교는?

전북 익산에 위치 58년 전통
안정된 제도 아래 교육 정진

전라북도 익산시에 자리한 육군하사관학교는 육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다.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육군의 핵심 인재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우수한 부사관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예비 부사관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 하에 안정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부사관으로서의 책임감 등 특유의 군인정신도 확고하다.

기술학교에 다니는 부사관에 지원한 김영훈 예비 부사관(22)은 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도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고 자랑했다. “일부 사회인이 군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



와 교육을 받으면서 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군대는 시간을 버리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소중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또래와 달리 이곳 예비 부사관들은 안정된 제도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실력 증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성은 예비부사관(22)은 “친구들이 직업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고 부러워합니다.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사회 진출도 가능하고, 국가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강한 자부심을 느껴요”라

고 소개했다.

육군부사관학교를 거쳐 자대에서 근무 중인 이병대(22·사진 왼쪽) 부사관은 부산 해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인 자격으로 부사관의 꿈을 이뤘다. “일단 군에 갈 거라면 부사관이 낫겠다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를 부사관으로 이끌었고,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사관에 지원해 일 자리 창출과 군 전투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산=글·사진 김세혁기자

육군 부사관으로 가는 다섯가지 길

육군 부사관이 되는 길은 크게 ▲예비역 ▲현역 ▲민간 ▲전문하사 및 전문병 ▲장학생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오른쪽 표참조)

예비역 부사관은 병장 전역 2년 이내 (장려금 지급) 및 전역 2년 초과자 (장려금 미지급)가 지원할 수 있으며 3~10주의 양성교육을 거친다.

현역 부사관은 고졸 이상·현역(일병~병장) 군인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10주의 양성교육을 받는

다. 민간은 고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상이며 양성교육기간은 15주다. 전문하사는 현역병 중 전역 2~6개월 전 지원자, 전문병은 입영대상자 중 입대 시 지원자에 한하며 복무기간은 전문하사의 경우 6~18개월, 전문병은 입대로부터 3년이다. 마지막으로 장학생은 전문대 및 폴리텍대학 재학생으로 15주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명된다. /김세혁기자

모집과정		지원자격		전형방법		모집시기		양성교육	입관후 의무 복무 기간	
		학 력	연 령	1차	2차	지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현역	전투·기술행정 (일병~병장)	고졸이상	18~27세 (예비역:28~30세)	서류전형 (추천심의)	필기평가, 신원조회 등	매 월	10주 (부사교)	4년 (여 3년)		
	전문화사			지휘추천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2주 (신병교육대)	6~18개월
민간	특전(남·여)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연 중		15주(특교단)	15주 (육훈소 5주, 부사교 10주)	4년 (여 3년)
	여군					11월, 2~3월	1월, 7월			
	현병(남·여)					1월, 3월	5월, 7월			
	법무(남·여)					3월	7월			
	군악(남·여)					연 중				
군중(남·여)										
전투/기술행정										
전문/폴리텍대 군장학생		학군제휴 협약 대학 재학생		대학성적, 신원조회 등	4월	8월		4년+장학 수혜기간		

“군대서 전문기술 취득 사회에서 활용하고파”

부사관 지원 동기도 다양

“남아의 꿈은 피, 조국에 바쳐~~.”

지난 2일 오후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연병장은 우렁찬 군가로 귀가 찢어찌렁 울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다.

병사보다 부사관의 군기가 더욱 세 보였다. 구보를 마치고 4명의 부사관을 만났다. 다시는 오지않겠다면 군대를 다시 오게된 이유를 듣기 위해서다.

대학 군장학생으로 입대한 도경원(22·이하 김)부사관 후보생, 전문하사로 입대한 정재준(23·이하 정)부사관 후보생이 말하는 부사관에 대해 들어봤다.

부사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 대학을 군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다니던 학교는



폴리텍 대학이었다. 군대에서 전문기술을 취득해 사회에서 써먹고 싶다. 물론 돈을

일이 없다 보니 통장이 불어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정= 전역 후 조금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군대에서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킨 뒤 진로를 탐색하기로 했다.

부사관을 지원하려는 후보생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도= 대학을 나와도 미래는 불투명한 세상이다. 본인하기 나름이지만, 앞으로 30년 가까이 직장이 보장되는 직업은 부사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 처음 군인이 되겠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사관에 입대하면 분명 자신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



최근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직업군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안정적 직업으로 부사관을 선택한 육군 부사관들의 모습.

‘안정적 직업’ 부사관이 뜬다

20년 복무시 연금...자녀학자금 지원

‘군대만큼 좋은 직장’은 없다? 최근 취업 컨설턴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건 인지상정.

한데 요즘엔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13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2008년 육군의 부사관 지원자는 7500명 선발에 1만5686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897명은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케이스. 하지만 이는 2007년 515명에 비해 74%인 382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육군인사사령부 남우우 인력획득과장(대령)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사관’을 지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선진국 외국군처럼 국내도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하나로 부사관을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몇 가지 긍정적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불황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결국 골 깊은 불황이 해외의 사례처럼 부사관의 인기를 더욱 올려놓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돌파구 없는 위기는 없다”

지난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소재 육군부사관학교(학교장 이순진 준장)에서 만난 최원호(26·초급반 교육중)하사는 2007년 11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출신이다.

최 하사는 전역 뒤 부푼 꿈을 안고 IT 회사에 입사했지만 생각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에 앞길 막막했다. 또 내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가 부사관을 지원한 이유는 이랬다.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다. 돈을 내 또래에 비해 안정되게 모을 수 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관사와 아파트가 제공되는 것도 큰 메리트다.”

실제 부사관이 되면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진다. 20년 이상 복무시 연금혜택은 물론 자녀의 중·고교 학자금이 전액 지급되고, 대도시로 유학 간 자녀들에게는 군 기숙사까지 제공된다.

남 과장은 이어 “부사관은 이제 안정된 하나의 직업군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대학의 학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 알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울수록 내실을 키워라

현역병 중에서도 부사관으로 연장복무를 희망하는 ‘전문하사’지원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하사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돼 400여 명이 선발됐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800여 명을 선발될 계획이다.

전문하사는 현역병이 전역 2개월~6개월을 앞두고 지원하면 전역 후 6개월~18개월간 하사로 연장복무가 가능하다. 또 매월 120만원의 월급도 지급된다.

전역 후 복학을 앞둔 시점에 어학연수나 학비를 준비하려는 현역병들이 전문하사에 관심이 높다는 게 육군 측 설명이다.

◆부사관은 21세기 인기직종

이에 따라 육군은 현재 미래의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 때부터 부사관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

육군과 학군제휴를 맺은 36개 전문대 부사관 학과 및 특수학과에서 매년 3000명의 신입생이 선발되고 있을 정도다.

마지막으로 남 과장은 “과거 열악한 환경에 젊은이들 사이에 기피하던 군대가 이제는 미래의 안정된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수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한 뒤 군의 경력과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흐뭇하다”고 전했다.

/계통대=김지민기자

jmkim@metroseoul.co.kr

/ 사진=이진혁 (라운스테이블)

올 부사관 1만명 뽑는다

공무원 9급 준하는 대우
전공·특기 따라 업무 수행

‘일자리 창출, 육군이 해결한다!’

육군이 올해 1만67명의 부사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보다 1200명을 더 뽑는다. 부사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임관과 동시에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사관은 군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시 도움이 된다. 하사로 임관해 장기복무시 안정된 직장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의 전공과 자격에 따라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모집분야는 경리, 의무, 영상정보, 차량 및 헬기 정비, 법무 등 54개 전문직군이다.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18~27세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병장 전역자 출신은 28~30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부사관은 10~15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된다.

매달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며, 시험 전형도 소개돼 있다.

/김지민기자

기혼자에 아파트 제공

부사관으로 임관되면 미혼자에게는 독신자 숙소가 제공되고, 기혼자에게는 관사 및 아파트가 제공된다. 또 저렴한 이자의 융자 혜택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도 일반인에 비해 쉬운 게 장점이다.



육군은 올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만 67명의 부사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후보생들이 구보를 하고 있다.

자녀에게는 중·고교 과정 학비 전액이 지급되며,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은 군장학회와 군인공제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초임하사의 연봉은 1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숙소 및 식대·교통비·의류비 등을 포함하면 2000여

만원 정도 된다.

의무복무기간(4년) 동안에도 3000만~5000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25년까지 장기근무도 가능하다. 또 전문대학과 사이바대학, 대학교, 대학원 진학시 학비를 지원하며, 국가 기술자격 취득의 기회도 주고 있다.

육군 올해 부사관 1만명 뽑는다

청년 실업 해소 일환...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선발

육군이 세계적 경기침체로 증가 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부사관을 선발한다.

육군본부는 1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초임하사 1만67명을 선발하고 전문하사(유급지원병 I형)도 1800여 명 확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임하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것이며 전문하사 확득 규모 역시 당초 계획된 900여 명보다 무려 100% 늘어난 수다.

초임하사는 일반 부사관으로 민간 부사관 5050명, 헌병·법무·군악 등 특

수부사관 147명, 여군 335명, 특전부사관 1440명 등 모두 6972명을 선발한다.

또 전문(폴리텍)대 장학생 585명과 함께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의무복무 중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현역 부사관도 25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유급지원병 I형인 전문하사 선발인원도 대폭 증원했다. 올해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을 지원받아 900명 더 늘어난 1800여 명을 확득하기로 한 것.

이는 초임하사 1만여 명 모집과는 별

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육군은 전문하사 모집 활성화를 위해 부대별 확득 목표인원을 지정하고 제대별 주임원사단을 중심으로 확득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문하사의 경우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의무복무를 완료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병사로 생활하던 부대에서 6~18개월간 연장복무하는 제도. 연장복무 기간에는 하사로서 월 12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확득과장 남응우(3사17기) 대령은 “부사관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림에 따라 청년실업 해

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육군 간부들도 이 같은 선발 정책을 인지하고 보다 우수한 부사관 인력을 확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육군은 초임하사 선발 외에 부사관 복무연장을 통해서도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전역할 예정인 부사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한 차례 복무연장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에 복무연장 신청을 받는데 그 규모만 무려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71@dema.kr

육군도 '일·만·나' 동참 ... 부사관 1만 명 뽑는다



육군본부가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육본은 공무원 신분인 부사관 과정에 올해 1만67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200명 늘어난 수치다. 모집 분야는 경리, 의무, 영상정보, 차량 및 헬기 정비와 수리, 무선다중장비 수리, 법무 등 54개 전문직군이다. 지원 자격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18세 이상 27세 이하면 된다. 단 예비역은 제대군인 지원법을 적용, 28~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은 육본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매달 이뤄진다. 1차로 지원서 접수와 지적 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건전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보기 위한 인성검사를 거친다. 필기시험은 언어영역, 지각속도, 수리해석, 공간지각 능력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차로는 전국 군 병원을 통한 신체검사와 면접을 본다. 1, 2차 전형이 끝나면 한 달 가량 면접관들의 총괄 검증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합격자는 육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사관 초임은 1500만원가량이다. 숙소 및

식대·교통비·의류비 등을 포함하면 2000만원 정도 된다. 아파트 같은 숙소도 제공된다. 자녀에게는 중·고교 과정 학비 전액이 지급되며,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은 군장학회와 군인공제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전국 44개소 호텔이나 콘도 등 각종 복지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육본은 전국 43개 대학 및 59개 전문대와 '학·군 제휴' 협약을 체결, 매년 일정 인원을 추천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